

身形藏府圖에 관한 비교 연구*

- 『東醫寶鑑』의身形藏府圖를 기준으로-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成旼奎¹ · 丁彰炫¹ **

A Comparative study on Sinhyeongjangbudo(身形藏府圖) - By the Standard of Sinhyeongjangbudo(身形藏府圖) in 『Donguibogam(東醫寶鑑)』

Sung Min-gyu¹ · Jeong Chang-hyun¹ **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Donguibogam(東醫寶鑑)』 is published in 1613 in Joseon(朝鮮) Dynasty, and reprinted many times in Korea, China and Japan. After publication of Donguibogam, Donguibogam became a base of Korean Medical development. Until now, Korean Oriental medical doctors make the most use of Donguibogam in clinical medicine. Donguibogam Sinhyeongjangbudo(身形藏府圖) represents Heojun(許浚)'s medical view, but there were not enough research about it.

In oriental medical development, Taoism and Medicine interact each other and develop into higher grade. We searched Taoistic human body figures and medical ones which appeared before Donguibogam. We compared Donguibogam Sinhyeongjangbudo(身形藏府圖) with other figures and revealed the special features of it. Donguibogam Sinhyeongjangbudo is one of medical human body figures, but it has Taoistic features.

Heojun(許浚) located Sinhyeongjangbudo at the opening of Donguibogam, and represented his medical point of view. Heojun laid emphasis on Taoistic training more than medical care in Donguibogam, and this thought is expressed in introduction of Donguibogam. Donguibogam Sinhyeongjangbudo shows Heojun(許浚)'s exact view.

Key Words : Heojun(許浚), Donguibogam(東醫寶鑑), Sinhyeongjangbudo(身形藏府圖), human body figure

I. 서론

*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대학원의 2007학년도 우수연구논문 장학금으로 지원 받아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丁彰炫,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E-mail : jeongch@khu.ac.kr Tel : 02-961-0337,
접수일(2008년 7월 28일), 수정일(2008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2008년 8월 14일)

『東醫寶鑑·集例』에 “우리나라는 동방에 치우쳐 있으나 醫藥의 도는 면면히 이어졌으니 우리나라의 의학도 ‘東醫’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東醫寶鑑』이 한국 한의학의 맥을 잇는 책이라는 것을 밝혔다. 『東醫寶鑑』은 이후의 한국 한의학을 주도하였고 한의학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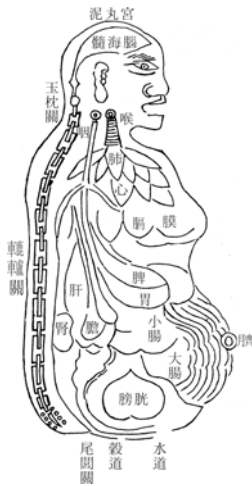


그림 1. 『東醫寶鑑』身形藏府圖

『東醫寶鑑』의 처음은身形藏府圖(그림 1.)로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 인체내부도를 수록한 의서는 흔치 않다. 인체내부도를 책의 첫머리에 둔 의서는 중국에도 그리 많지 않다.

기존에 『東醫寶鑑』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였으나, 『東醫寶鑑』身形藏府圖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1996년에 정우열, 이진홍, 전병훈이 공동 저술한 『東醫寶鑑』身形藏府圖에 대한 논문²⁾은身形藏府圖를 통사적으로 다루고 『醫學入門·臟腑圖』와 비교하고 있으나, 『萬病回春』의 그림을 잘못 인용하여 『萬病回春』과 『東醫寶鑑』을 비교하지 못하였다. 김호 교수³⁾는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에서身形藏府圖에 대해 의학적인 큰 틀로 조명하고 역사적, 문화적인 관점으로 논의하였다. 하지만 연라도의 그림을 잘못 인용하였고,身形藏府圖에 대한 의학적인 접근이 상세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에 논자는 한의학에서 인체내부도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살피고, 다른 의학적적과 비교하여 『東醫寶鑑』의 특징을 더욱 드러내며, 『東醫寶鑑』 내에서身形藏府圖가 갖는 위상을 살피고자 한다.

醫學의 발전은 道敎와 맞물려 이루어졌다. 황제내경이 黃老思想에서 출발하였고, 황제내경을 체계화한 王水도 隋唐代의 도교 성행과 관련이 깊은 인물이다. 『東醫寶鑑·集例』에서는 허준도 “道敎에서는 淸淨과

修養을 근본으로 삼고, 의사들은 藥餌와 鍼灸로 병을 치료하니 도가는 그 정밀함을 얻은 것이고 醫門에서는 그 대강을 얻은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⁴⁾ 따라서 한의학의 인체내부도를 살피는 데에 도가서적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논문을 통해 『東醫寶鑑』 이전에 출간된 道家書籍과 醫書 중 주요서적의 인체내부도를 시대별로 살펴보고, 『東醫寶鑑』의身形藏府圖는 어떤 시대적 전통을 따르는지 논의하겠다. 그리고 『東醫寶鑑』의 첫머리에 놓여있는身形藏府圖가 『東醫寶鑑』의 본문 내용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身形藏府圖의 의미를 논의하겠다.

우선 『東醫寶鑑』의 통사적인 의의를 살피겠다.

道家書籍의 인체도 중에 의학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烟蘿圖,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歐希范五臟圖, 存眞圖 등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失傳되어 전하지 않되 다른 책에 인용되어 전하는 것도 있다.

중국의 의서에서 인체내부도를 서두에 둔 책은 종종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서 중에 인체내부도를 서두에 둔 책은 『東醫寶鑑』이 유일하다.⁵⁾

인체내부도를 서두에 둔 중국 의서로는 明初의 『醫學入門』과 『萬病回春』 등이 있다. 이 책들은 『東醫寶鑑』 본문에 자주 인용되었으며, 그 인체도가 『東醫寶鑑』의身形藏府圖와 유사하다. 특히 『萬病回春』의 인체도는 『東醫寶鑑』이 『萬病回春』의 인체도를 저본으로 하여身形藏府圖를 그렸다고 보아도 좋을 만큼 닮아있다.⁶⁾

그럼에도 『東醫寶鑑』의身形藏府圖는 다른 인체내부도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東醫寶鑑』과 『東醫寶鑑』의身形藏府圖가 기존 중국 의서들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어서身形藏府圖가 『東醫寶鑑』 내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살피겠다.

1)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맹웅재, 박경남, 박현국, 방정균 외 6인. 韓醫學通史. 경기도 고양시. 대성의학사. 2006. p.313.
2) 정우열, 이진홍, 전병훈. 東醫寶鑑의身形藏府圖와 許浚의醫學思想. 대한동의병리학회 동의병리학회지. 1996. 제 10권 2호.
3) 金濤.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p.175-188.

4) 成昊俊. 東醫寶鑑內景篇의 道敎思想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0. 13(1). p.254.
5) 金濤. 東醫寶鑑의 人體論. 서울. 일지사(한국학보). 1999. p.108.
6) 金大亨. 東醫寶鑑·身形門의 도가사상에 대한 고찰. 2002. p.30.

허준은 身形藏府圖에 ‘인체는 소우주’라는 손진인의 글을 싣고, 이어서 ‘사람마다 형색이 다르므로 처방도 다르다.’는 주단계의 글을 실음으로써 『東醫寶鑑』의 인체관을 말한다. 이러한 인체관은 『東醫寶鑑』 곳곳에서 인체의 생리와 병리, 임상 실제로 나타난다. 인체는 소우주로, 자연의 변화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간다. 『東醫寶鑑』 「身形門·四氣調神」, 「身形門·人心合天機」, 「身形門·四時節宜」, 「氣門·六字氣訣」, 「五臟六腑門·五臟病間甚」, 五臟六腑의 修養法, 「天地運氣門」, 「審病門·可治難治證」, 「辨證門·陰陽生病」, 「辨證門·四時生病」, 「辨證門·百病始生」, 「診脈門·天和六脈」, 「用藥門·毋伐天和」, 「用藥門·用藥大法」, 「用藥門·時禁」 등에서 잘 나타난다. 그리고 사람마다 治法이 다르다. 허준은 男女·老少·肥瘦·黑白에 따라 각각 다른 審病·辨證·診脈·用藥을 제시한다. 『東醫寶鑑』 「辨證門·肥瘦辨病候」, 「診脈門·老少男女異脈」, 「診脈門·肥瘦長短異脈」, 「用藥門·肥瘦用藥」 등에서 잘 나타난다. 구체적인 일례로 「氣門·用藥法」에서도 “正傳曰男子屬陽，得氣易散，女人屬陰，遇氣多鬱，是以男子之氣病常少，女人之氣病常多，故治法曰女人宜調其血以耗其氣，男子宜調其氣以養其血。”라고 하여 남녀의 처방 차이를 말한다.

『東醫寶鑑·身形藏府圖』는 『東醫寶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이다. 「身形門」의 背有三關과 丹田有三의 내용에서 身形藏府圖와 일치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으며, 「頭門·頭有九宮」에서 머리의 중앙에 위치하는 泥丸宮도 身形藏府圖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외에도 『東醫寶鑑』의 많은 내용이 身形藏府圖에 드러난다. 身形藏府圖는 『東醫寶鑑』의 서두에 위치하였으며, 허준이 『東醫寶鑑』을 통해 보여주는 인체관의 집약된 그림이다.

II. 본 론

한의학의 인체내부도는 서양의학의 해부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한의학의 인체내부도를 처음 보는 사람은 표현의 단순성과 추상적인 이미지 때문에 한의학 인체내부도의 가치를 쉽게 폄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의학이 무슨 이유로 해부학을 발달시키지 못하였는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인체관이 어떠한가에 서양의 해부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인체내부도를 그리게 되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더욱 바른 연구의 방향이 될 것이다.⁷⁾

인체를 그린 그림에는 인체를 보는 觀이 스며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인체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한의학에서 인체를 보는 관점이 서양과는 다르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볼 때에 우리는 동양 인체내부도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東醫寶鑑』 이전의 道家 서적과 醫書에 기재된 인체내부도를 위주로 하여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와 비교분석할 것이다.

1. 중국의 인체내부도

고대 중국의서들 중에서 五臟圖를 수록하였다고 하는 책들이 여럿 있지만 모두 현존하지 않고 書目으로만 확인될 뿐이다.⁸⁾ 반면에 도가 계통의 여러 서적에는 상당수의 인체도가 전해지고 있다. 중국의 전통 의학은 醫家들의 노력 뿐 아니라 道家들에 의해서도 발달하였다.⁹⁾

가. 초기의 인체내부도

현존하는 중국 最古의 인체내부도는 10세기 전반에 五代의 燕真人¹⁰⁾이 그렸다는 烟蘿圖로 알려져 있

7) 金滄. 東醫寶鑑의 人體論. 서울. 일지사(한국학보). 1999. p.111. 에서 미국의 중국과학사 학자인 Nathan Sivin의 관점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을 다시 수록하였다.
8) 고대 중국 醫書 중 서목으로만 전하는 책들에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
• 황제십이경맥명당오장인도(黃帝十二經脈明堂五臟人圖) - 隋志 : 이 책이 현존하는지, 서목으로만 전하는지에 관해서는 김효와 정우열 등의 논문이 차이가 있으므로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 화타현문맥결내조도(華陀玄門脈訣內照圖) - 崇文書目
• 孫思邈, 오장방통명감도(五臟旁通明鑑圖) - 宋志
• 배씨왕정오색방통오장도(裴氏王庭五色旁通五臟圖) - 新唐志
9) 金滄. 東醫寶鑑의 人體論. 서울. 일지사(한국학보). 1999. pp.110-111.

다. 이는 『道藏』¹¹⁾¹²⁾에 수록되어(그림 4.) 전한다. 「內境左側之圖」(그림 2.)와 「內境右側之圖」(그림 3.)는 다분히 도가적인 사상을 담은 것이지만, 「內境正面之圖」와 「內境背面之圖」(그림 5.)는 의학적인 인체도에 가까우며, 이후 楊介의 『存眞圖』와 李嗣의 『黃帝八十一難經句解』¹³⁾(그림 6.)에 큰 영향을 끼친 그림이다.



그림 2. 烟蘿圖 內境左側之圖 - 道藏



그림 3. 烟蘿圖 內境右側之圖 - 道藏



그림 4. 烟蘿圖 朝眞圖(좌) 및首部圖(우) - 道藏



그림 5. 烟蘿圖 內境背面之圖(좌) 및內境正面之圖(우) - 道藏



그림 6. 李嗣,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10) 燕眞人の號가 烟蘿子이다. 書名이 烟蘿子인 저작에는 上清金碧篇 1권, 服內元氣訣 1권, 修真十書 등이 있다. 특히 修真十書는 體殼歌, 首部圖, 朝眞圖, 內境左側之圖, 內境右側之圖, 內境正面之圖, 內境背面之圖, 內觀經을 수록하였으며 모두 표제에 烟蘿子가 찬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 道教大辭典, 중국도교협회, 華夏出版社, 1993. p.833. : 韓奉材, 華陀玄門內照圖의 形成과 臟腑 理論에 대한 考察, 2007.의 인용을 재인용 함.

11) 道藏: 書名, 道家에서 佛敎의 大藏經을 본떠서 편찬한 책. 대략 송나라 때(960~1279)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책의 내용은 다양하며 광범위하여 일부는 諸子百家의 저서이다. 醫書도 있는데, 黃帝內經도 포함되어 있고, 기타 煉丹, 氣功, 導引 등의 방법에 관한 책들도 거의 다 망라되어 있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는 명나라 正統(1436~1444) 때와 萬曆(1573~1619) 때에 나온 2종의 판본이 있다. 많은 典籍의 편찬자가 확실치 않고, 成書 시기 또한 상세하지 않으며 분류또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다. 이런 부분을 보완한 道藏提要를 추천할 만하다. 任繼愈가 主編한 이 책은 四庫全書提要의 體例를 참조하여 그 요점을 간추렸다. 특히 일부 經書의 시대와 저자, 내용 등을 고증하였으며 道교와 불교의 상호영향에 대해서도 밝혔다.(胡孚琛 主編, 中華道教大辭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1701.; 東洋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編, 東洋醫學大辭典, 1999. 3권. p.65.) - 韓奉材, 華陀玄門內照圖의 形成과 臟腑 理論에 대한 考察, 2007.의 인용을 재인용 함.

12) 그림 2, 3, 4, 5는 모두 다음에서 인용함. : 道藏. 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 1987. Vol.4 p.690. 修真十書雜著捷徑卷之十八 煙蘿子 撰, 養生息命詩

13) 그림 6의 黃帝八十一難經句解는 다음에서 인용함 :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 p.6.



그림 7. 日本 梶原性全의『頓醫抄』 수록 -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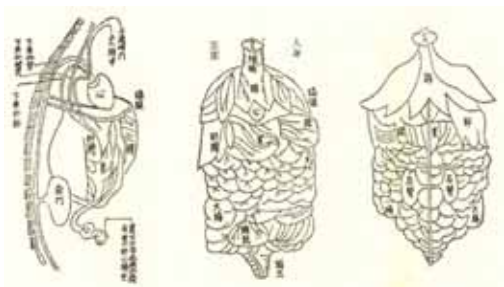


그림 8. 『歐希范五臟圖』: 日本 梶原性全의『萬安方』 수록 -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그림 10. 李嗣,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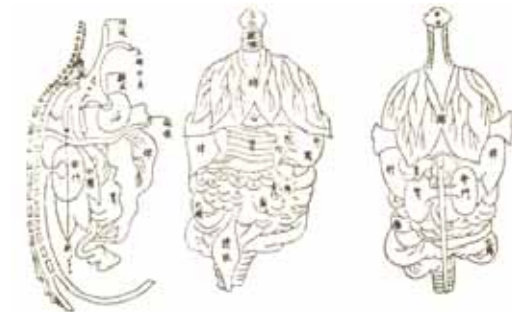


그림 9. 烟蘿圖 -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해부에 대한 내용은 이미 『靈樞·經水篇』에 언급¹⁴⁾ 되었으며, 『難經』에도 해부에 대한 언급¹⁵⁾이 있다.

14) 黃帝內經 靈樞·經水篇에 “且夫人生于天地之間, 六合之內, 此天之高, 地之廣也, 非人力之所度量而至也. 若夫八尺之士, 皮肉在此, 外可度量切循而得之, 其死可解剖而視之”라 하였다.

15) 難經 42難에는 五臟六腑와 口舌部の 크기와 무게, 둘레, 용량 등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나온다. 五臟六腑를 직접 관

해부도의 그림이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北宋 慶曆 5년(1045년)에 그려진 『歐希范五臟圖』¹⁶⁾가 있으나 원본은 현재 전하지 않고, 일본의 의서에 模寫되어 전한다.(그림 8.) 가마쿠라(鎌倉)시대 일본의 의사인 가지와라(梶原性全; 1265~1337)가 지은 『頓醫抄』¹⁷⁾(그림 7.)과 『萬安方』¹⁸⁾이라는 의서에 모두 9폭의 五臟六腑圖를 전하는데¹⁹⁾, 『歐希范五臟圖』를 기본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한다. 『歐希范五臟圖』를 본 만이 그림들 역시 烟蘿圖의 「內境正面之圖」, 「內境背面之圖」와 비슷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찰하고 측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 書名. 宋代 吳簡(一說 靈簡)이 編했음. 北宋 慶曆間(1041~1048)에 編者는 有關人과 함께 50구의 시체를 해부하여 이들 시체의 喉部, 胸복강장부에 대하여 상세히 비교 관찰하고 繪工 宋景에게 도보를 그리게 하였다. 해부를 당한 대상은 모두 복송에 반항하다 체포 살해된 사람들이었으며, 歐希范은 그들의 首領이었다. 原書는 이미 佚失되었음(한의학대사전. 의사문헌편.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1985. 한의학연구원출판부, p278). - 韓奉材. 華陀玄門內照圖의 形成과 臟腑 理論에 대한 考察. 2007.의 인용을 재 인용함.

17) ‘그림 7.’의 頓醫抄에 수록된 五臟六腑圖는 다음에서 인용함: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靑島. 靑島出版社. 2003. p.13

18) ‘그림 8.’의 歐希范五臟圖는 다음에서 인용함: 金滌.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p.182.

19) 다른 臟腑圖와는 달리, 頓醫抄와 萬安方의 臟腑圖에는 肝臟이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는 실제 해부를 했을 때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한의학의 左肝右肺라는 氣血生成·循環의 관점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肝臟을 인체 左右의 어느 쪽에 표시했는지, 肝臟의 표시가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변천해왔는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²⁰⁾에 수록한 그림이 논자의 조사와 달라서 함께 신는다. 약간의 착오가 있는 듯하다. 김호가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의 그림이라 한 ‘그림 10.’²¹⁾은 烟蘿圖로 보이며, 김호가 烟蘿圖라 한 ‘그림 9.’²²⁾는 清代 王宏翰의 『醫學原始』에 수록된 그림이 混入된 듯하다. 『萬安方』의 그림은 찾지 못하여 김호가 조사한 그림(그림 11.)²³⁾을 그대로 올렸다.



그림 11. 存眞(還中)圖 -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12세기 초 存眞圖로 증보, 발전하면서 인체내부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宋代 楊介²⁴⁾의 存眞還中圖 혹은 存眞圖²⁵⁾라 불리는 그림이 그것이다.²⁶⁾ 楊介

의 存眞圖가 비록 後世에 流傳되진 않았지만,²⁷⁾ 楊介가 存眞還中圖를 작성한 후 존진도는 전통 중국의 기본적인 내장도로 자리매김한다. 이후 중국의 인체내부도는 존진도를 기본으로 하여 明堂圖, 脈訣圖, 臟象圖 등으로 분화 발전한다.²⁸⁾

한의학에서 인체를 묘사한 그림을 크게 구분하면 臟腑圖와 明堂圖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臟腑圖는 인체 내부에 있는 五臟六腑의 형상을 묘사한 그림이며, 明堂圖는 인체의 경맥과 경혈을 나타낸 그림이다.

臟腑圖에는 인체의 正面과 背面을 그린 正伏人臟腑圖가 있고, 側面을 그린 側人臟腑圖²⁹⁾가 있다. 이들 장부도는 모두 臟腑總圖로서 인체내의 모든 장부를 묘사한 그림이다. 그리고 臟腑分圖라 하여 하나하나의 장부를 각각 그린 그림도 있다.³⁰⁾

側人臟腑圖가 正伏人臟腑圖와 다른 점은, 대부분 머리와 背部, 腹部 외벽 등의 외형까지 포함한 그림이라는 점이다. 이후 『醫學入門』³¹⁾의 臟腑圖와 『萬病回春』³²⁾의 側身人圖도 側人臟腑圖로 분류할 수 있다. 『東醫寶鑑』 身形藏府圖의 모습으로 볼 때, 身形藏府

存眞圖는 다른이가 묘사하여 후대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27) 楊介의 存眞圖는 後世에 流傳되지 않았지만, 圖譜는 元代 孫煥의 重刊玄門脈訣內照圖를 통해 後世에 保存되었다.(홍원식, 윤창열 편저. 증보중국의학사. 서울. 일지사. 2002. p.249.)

28) 金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p.181
29) 側人臟腑圖는 “內景全圖”, “內景圖”라고도 한다.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 側人臟腑圖는 元代 太醫院 針灸科教授인 忽泰의 明堂圖가 있다.(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 p.10.)

30) 韓奉材. 華陀玄門內照圖의 形成과 臟腑 理論에 대한 考察. 2007. p.9. - 이 분류는 黃龍祥 등이 中國鍼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에서 인체도를 나누는 분류법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31) 醫學入門은 李梴의 저작이다. 李梴의 號는 健齋이고, 南豐人이다. 萬曆乙亥三年(1575)에 醫學入門 19卷을 撰述하였다.(홍원식 윤창열 편저. 증보중국의학사. 서울. 일지사. 2002. p.373.)

32) 萬病回春은 龔廷賢의 저작이다. 龔廷賢의 字는 子才이고, 號는 雲林인데, 金谿人이다. 嘉靖萬曆時(1522~1619)人으로 太醫院官을 歷任했다. 萬病回春은 龔廷賢이 祖上으로부터 傳受받은 것과 자기의 醫學經驗을 종합하여 萬曆乙卯(1587)에 編성한 책이다.(홍원식 윤창열 편저. 증보중국의학사. 서울. 일지사. 2002. p.373, 481.)

20) 金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p.182.
21) 金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p. 182.
22) 金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p. 182.
23) 金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p.181, 182.
24) 楊介(1060~1130年)는 字가 吉老이며 泗川(지금의 安徽省 盱眙)人이다. 『存眞圖』1권을 校正하였다. - 홍원식 윤창열 편저. 증보중국의학사. 서울. 일지사. 2002. p.284
25) 崇寧年間(1102~1106)에 盜賊을 慘殺하여, 醫師와 畫工에게 命하여 解剖하고 그림을 그리게 한 것이다. 그 그림을 當時 유명한 醫師인 楊介가 교정하여 存眞圖라 이름하였고, 이후로 楊介의 存眞圖라 부르고 있다.
楊介의 自序에 의하면 “崇寧中刑賊于市, 郡守李夷行遣醫, 并圖工往觀, 扶膜摘膏曲折圖之, 盡得纖悉介取以校之, 其自喉咽而下心 肺 肝 脾 膽 胃之關屬, 小腸 大腸 腰腎 膀胱之營壘, 其中經絡聯附, 水穀泌別, 精血運輸 源委流達, 悉如古書, 無少異者.”라 하였다.(홍원식, 윤창열 편저. 증보중국의학사. 서울. 일지사. 2002. p.249.)
26) 홍원식, 윤창열 편저. 증보중국의학사. 서울. 일지사. 2002. p.249에 의하면 存眞圖는 실전되었다. ‘그림 11.’의

圖는 存眞圖에 바탕을 둔 明初의 의서들을 따른 側人藏腑圖로 볼 수 있다.

나. 『醫學入門』의 「臟腑圖」

『醫學入門』臟腑圖(그림 12.)는 『東醫寶鑑』身形藏府圖처럼 측면에서 그려진 그림이라는 점은 같지만, 五臟六腑의 묘사나 腹部의 묘사 등 상세한 부분은 차이점이 많다.



그림 12. 『醫學入門』臟腑圖

다. 『萬病回春』의 側身人圖

『萬病回春』側身人圖(그림 13.)는 『東醫寶鑑』身形藏府圖와 매우 유사하다. 오장의 배치나 복부 울동의 표현 등도 닮았다. 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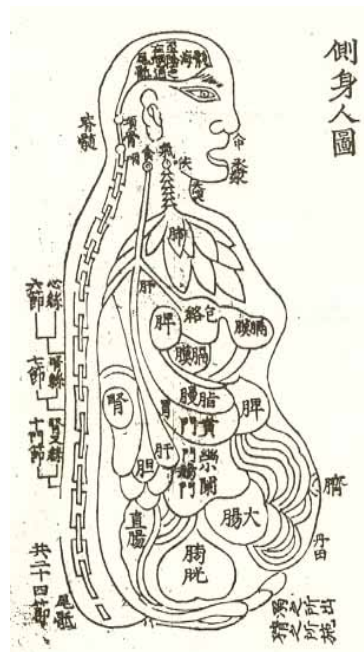


그림 13. 『萬病回春』側身人圖

2. 우리나라의 인체내부도

가. 『醫方類聚』의 인체내부도

『醫方類聚』의 五臟圖(그림 14.)는 도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그림이다. 그림의 묘사가 한의학적인 장상론의 모양을 띤 부분도 있지만, 도교이론에 따른 전설의 동물과 도교적 상징들을 함께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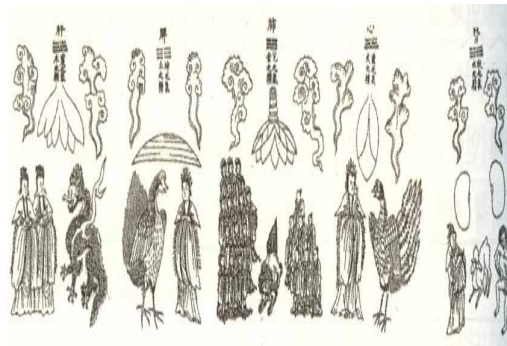


그림 14. 『醫方類聚』의 五臟圖

나.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그림 15.)는 側人臟腑圖이다. 머리의 腦로부터 背部의 척추까지 연결된 것이 잘 묘사되어 있다. 腦髓海를 泥丸宮이라 표시하고 背部에 玉枕關, 轆轤關, 尾閭關의 三關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東醫寶鑑』이 치료에 앞서 도교적 섭생과 수양을 우선으로 함을 나타낸다.³³⁾ 身形藏府圖에 묘사된 오장육부 또한 『東醫寶鑑』內景篇·五臟六腑門의 묘사 및 五臟分圖와 합치된 묘사가 많다. 腹部의 역동적인 율동은 下丹田에 해당하는데, 內丹修練의 胎息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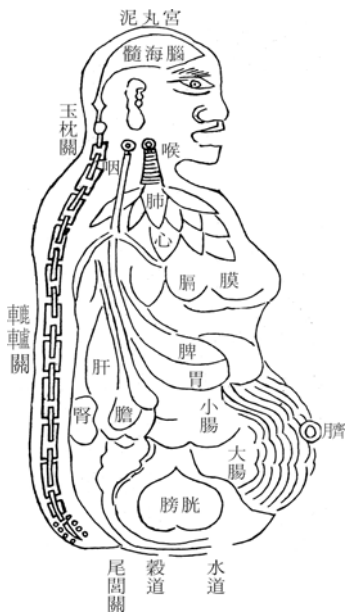


그림 15. 『東醫寶鑑』 身形藏府圖

3. 『東醫寶鑑』 身形藏府圖와 다른 서적들의 人體내부도 비교

33) 許浚, 東醫寶鑑·東醫寶鑑序에서 “且人之疾病, 皆生於不善調攝, 修養爲先 藥石次之.”라 하였고, 集例에서 “道家以清靜修養爲本, 醫門以藥餌鍼灸爲治, 是道得其精, 醫得其粗也.”라 하였다.

34) 丁彰炫, 東醫寶鑑和道家思想的關聯性.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2). pp.28-29.

가. 중국의 人體내부도

1) 초기의 人體내부도

烟蘿圖 계통의 人體내부도는 몸통을 위주로 그린 그림이다. 머리 부분은 모두 생략되어 있다. 몸통을 좌우측면, 전면, 후면에서 본 그림이며, 척추는 함께 그려져 있으나 흉곽 및 外形의 틀은 모두 생략되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그리기 보다는 오장의 모습을 그리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存眞圖³⁵⁾는 측면도에서 머리를 함께 그린 것이 특징이다. 측면도, 전면도, 후면도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측면도에서는 머리를 함께 그려서 뇌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머리에 이목구비도 함께 그려져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2) 『醫學入門』의 臟腑圖

『醫學入門』 臟腑圖는 五臟六腑를 자세히 그리고 있다. 膈膜을 표현하여 흉곽과 복부를 구분하고, 척추를 상세하게 묘사하여 節을 표현하며, 뇌수해와 척추를 연결³⁶⁾하여 精髓의 통로를 표현하고 있다.

『東醫寶鑑』 身形藏府圖와 비교하여 볼 때, 『醫學入門』 臟腑圖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각 臟腑의 모양이 다르게 표현되었고 心包絡을 따로 표기하여 心臟과 心包絡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心包絡에서 肝, 脾, 腎, 胃 등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肝系, 脾系, 腎系, 胃系로 표현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腹部에서 背部까지 명확하게 膈膜으로 구분하였다.³⁷⁾ 小腸과 大腸이 구불구불하게 쌓여있는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였으며 幽門, 關門 및 直腸 등을 별도로 표기하여 小腸과 大腸의 묘사가 상세하다. 외부 형태의 묘사에서는 복부율동이 그려져 있지 않고, 前陰에서 소변과 精이 함께 나오는 통로라는 것을 표현³⁸⁾하고 있다. 後陰은 坤道라 표현하였다.

35) 金澐,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p.182. 의 그림 인용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36) 醫學入門의 그림에 “髓海, 至陰之在頭, 通尾骶.”라 하였고, 설명에 “腦者, 髓之海, 諸髓皆屬於腦, 故上至腦, 下至尾骶, 髓則腎主之.”라 하였다.

37) 李梴,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91. pp.27-28. “膈膜在心肺之下, 與脊腸腹周回相著, 如幕不漏, 以遮蔽濁氣, 使不上薰於心肺.”

3) 『萬病回春』의 側身人圖

『萬病回春』의 인체내부도 중 側身人圖는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와 매우 유사하다. 입을 벌리고 있으며 얼굴 생김새까지도 닮은 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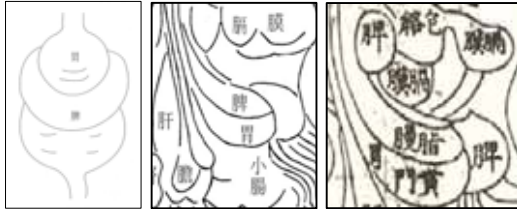


그림 16.

『東醫寶鑑·脾臟』 『東醫寶鑑·身形藏府』 『萬病回春』 側身人圖의 脾臟部分

오장육부의 묘사도 비슷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가 더욱 상세함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五臟六腑門』에는 각 오장의 모습들을 그린 五臟圖가 있는데, 五臟의 형상과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묘사되어 있다. 한 예로, 『東醫寶鑑·脾臟門』의 脾臟圖를 살펴보면, 위장을 감싸고 둘러서고리와 같은 모양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東醫寶鑑·脾臟門·脾形象』에 “비의 형상은 말발굽과 같고, 안쪽으로 위안을 감싸고 있다.(內經註)” 하였고, “脾의 형태는 납작하여 말발굽과 비슷하고, 또 낮과 유사하다.(入門)”고 하였다. 『東醫寶鑑』 身形藏府圖를 보면 脾臟圖를 측면에서 관찰한 모습임을 알 수 있으나, 『萬病回春』의 側身人圖는 만지(月+曼, 脂)가 따로 나와 있으나 그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萬病回春』에는 心臟의 직접적인 묘사가 없고 包絡이 膈膜과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膈膜의 묘사도 두 개의 뭉뚱그려진 덩어리로 표현하고 있어 『東醫寶鑑』과 차이가 있다. 六腑에 있어서는, 胃腸에 賁門을 함께 표현하고, 小腸의 위아래로는 幽門과 闕門을

표현하였으나 腸이 구불구불 굽어서 쌓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하나씩의 덩어리로 표현하였다. 直腸은 大腸과는 별도로 표현되어 있다. 前陰에서 소변과 精이 함께 나오는 통로라는 것을 표현³⁹⁾하였다. 前陰의 표현은 『醫學入門』의 영향을 받은 것이거나⁴⁰⁾, 당시의 인체도에 前陰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르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 우리나라의 인체내부도

1) 『醫方類聚』

『醫方類聚』의 오장도는 도교적 영향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는 그림이다. 인체 전부를 그린 인체내부도는 없으며, 오장 각각을 그린 그림을 수록하고 있다. 기존의 도가서적에 나타나는 오장육부도와 비교하면, 원문의 내용에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⁴¹⁾

4. 『東醫寶鑑』 身形藏府圖의 특징

첫째, 책의 첫머리에 기재한 그림이다.

첫머리는 전체를 조망하는 시작이라는 면에서 중요하다. 『醫學入門』은 선천도를 서두에 둬으로써 醫易의 상관성을 역설하였고, 『萬病回春』은 萬金一統述의 論說을 통해 天地의 시작과 인체의 內景, 外形을 총괄하고 치료를 논하였다.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는 身形門을 비롯한 『東醫寶鑑』 곳곳에 나타나는 인체관의 綱領을 살필 수 있도록 한 그림이다.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는 별도의 「身形藏府圖門」을 두어, 論說에 앞서 그림을 가장 서두에 두었고, 그림의 뒤에 孫思邈과 朱丹溪의 論說로 그림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책들은 論說이 앞서고 부가설명을 위해 그림이 쓰였다면, 『東醫寶鑑』은 身形藏府圖 그림을 서두에 두어 『東醫寶鑑』의

38) 李梴.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91. “溺之所出, 精之所施.”, “苦海” / “搖心精則動命門, 吸撮三焦精氣, 從此泄矣.”

39) 李梴.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91. “溺之所出, 精之所施.”

40) 시대적으로 醫學入門(萬曆乙亥三年-1575년)이 萬病回春(萬曆乙卯-1587년)에 앞선다.

41) 김대형.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학적 고찰. 2006.

인체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身形藏府圖로 인체의 內景과 外形을 표현하고, 孫思邈의 論說을 통해 人體가 小宇宙임을 말하고, 朱丹溪의 論說을 통해 사람마다 치료를 달리해야 함을 말한다. 身形藏府圖는 「身形門」과 『東醫寶鑑』 곳곳에 나타나는 허준의 인체관을 드러내는 그림이다.

身形藏府圖가 『東醫寶鑑』 첫머리의 유일한 人體圖로서 자리매김하는 데에 비해, 다른 책의 인체도는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다.

『醫學入門』은 첫머리인 圖說에서 先天圖로 시작하여 先後天을 논하고, 天地人物氣候相應說에서 인체의 12經脈, 15絡脈과 자연의 運氣변화를 연결하여 설명한다. 天地人物氣候相應圖의 도표에서 經絡과 臟腑, 五運六氣를 망라하여 天地人物氣候相應說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앞선 논설을 정리한다. 明堂仰伏圖로 인체 외부의 경락을 보여주고, 臟腑圖로 인체 내부의 五臟六腑와 髓海를 보여준다. 『醫學入門』의 臟腑圖는 인체 내부의 五臟六腑를 표현하기 위한 부차적인 설명이며 부분적인 그림이라 할 수 있다.

『萬病回春』은 1권의 萬金一統述에서 천지의 시작과 인체의 內景·外形을 총괄하고, 「藥性歌」, 「諸病主藥」에서 대략의 치료를 논한 후 「釋形體」에서 인체를 해석한다. 『萬病回春』의 側身人圖는 인체의 全面圖, 後面圖와 함께 「釋形體」의 내용 일부를 표현하는 그림으로, 論說에 대한 부가 설명이다.

둘째, 側人臟腑圖이다.

다른 의서에서 正伏人臟腑圖나 明堂圖와 함께 표기한 것과는 달리, 『東醫寶鑑』은 측면도만을 기재하였다. 측면도는 인체의 전면과 후면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인체의 前後를 대비하면, 腹部的 丹田과 背部的 三關을 볼 수 있다.⁴²⁾ 腹部는 울동하고 있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背部는 척추와 뇌수를 통해 精氣升降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척추의 묘사가 상세하고, 척추가 24마디라는 점까지 정

확하게 표현⁴³⁾하고 있다. 척추는 위로 뇌수에 연결된다. 玉枕關·轆轤關·尾閭關의 三關은 精氣升降의 통로이며,⁴⁴⁾ 髓海가 부족한 精不足 증상도 척추의 부위에서 나타난다.⁴⁵⁾

身形藏府圖가 측면도인 것은 『東醫寶鑑』의 도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데에 아주 효과적이다.

셋째, 身形藏府圖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東醫寶鑑』 內景篇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背部的 玉枕關, 轆轤關, 尾閭關 및 머리 腦髓海의 泥丸宮은 도교의 용어로서, 『東醫寶鑑』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복부의 울동하는 모습과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있는 모습,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 등은 身形門의 搬運服食이나 還丹內煉法의 양생요결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⁴⁶⁾ 도교적인 표현을 이처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身形藏府圖가 側人臟腑圖로서 전면과 후면을 함께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III. 결 론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는 存眞圖를 바탕으로 발전한 인체도 중 臟腑圖에 해당하는 그림이며, 그 중

42) 허준 지음.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대역東醫寶鑑. 하동군. 東醫寶鑑출판사. 2005. 東醫寶鑑·身形門·丹田有三 “仙經曰腦爲髓海, 上丹田, 心爲絳宮, 中丹田, 臍下三寸, 爲下丹田. 下丹田, 藏精之府也, 中丹田, 藏神之府也, 上丹田, 藏氣之府也.”

43) 허준 지음.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대역東醫寶鑑. 하동군. 東醫寶鑑출판사. 2005. 東醫寶鑑·背門·背有三關 “人之脊骨, 二十四節, 節之末, 名曰尾閭穴.”

44) 허준 지음.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대역東醫寶鑑. 하동군. 東醫寶鑑출판사. 2005. 東醫寶鑑·背門·背有三關 “腦後曰玉枕關, 夾脊曰轆轤關, 水火之際曰尾閭關, 乃精氣升降之道路也.”

45) 허준 지음.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대역東醫寶鑑. 하동군. 東醫寶鑑출판사. 2005. 東醫寶鑑·精門·精爲身本 “五穀之津液, 和合而爲膏, 內滲入于骨空, 補益髓腦, 而下流于陰股, 陰陽不和, 則使液溢而下流于陰, 下過度則虛, 虛則腰背痛而脛痠.”

46) 허준 지음.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대역東醫寶鑑. 하동군. 東醫寶鑑출판사. 2005. 東醫寶鑑·身形門·還丹內煉法 “易眞論曰 大修行人, 既得刀圭入口, 運已眞火以養之. 凡運火之際, 忽覺尾閭有物, 直衝夾脊雙關, 漉漉有聲, 逆上泥丸, 復自泥丸, 觸上顎, 顆顆降入口中, 味如冰酥, 香恬軟美, 覺有此狀, 乃是金液還丹也. 徐徐嚙歸丹田, 常常如此不絕, 則五藏清虛, 閉目內觀, 藏府歷歷如照燭, 漸次有金光罩身, 此乃眞景象也.”

側人臟腑圖에 해당한다. 시기적으로는 明初의 인체 내부도를 근간으로 하며, 그 중 『萬病回春』의 側身人圖에 가장 근사하다. 그러나 身形藏府圖는 『萬病回春』의 側身人圖보다 더욱 정밀하며, 『東醫寶鑑』의 각 부분에 나타난 五臟六腑圖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책의 내용을 부가설명하는 차원에서 그림을 활용한 다른 책과는 달리,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는 가장 서두에 위치하여 『東醫寶鑑』의 인체관을 드러내고 있으며, 도가의 修養을 중시하고 도교와 의학이 함께 발전해온 전통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림이다.

참고문헌

<논문>

1. 丁彰炫. 東醫寶鑑和道家思想的關聯性.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Vol.20-2(통권 제 37호). pp.28-29.
2. 김호. 東醫寶鑑의 人體論. 서울. 일지사(한국학보). 1999. pp.110-111.
3. 鄭遇悅.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와 許浚의 醫學思想. 龜巖學報. 1996. 제 14호.
4. 정우열, 이진홍, 전병훈.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와 許浚의 醫學思想. 대한동의병리학회 동의병리학회지. 1996. 10(2).
5. 권학철. 東醫寶鑑을 통한 許浚의 醫學思想에 관한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6. 김대형.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학적 고찰. 2006.
7. 金大亨. 東醫寶鑑·身形門의 도가사상에 대한 고찰. 2002. p.30.
8. 東醫寶鑑·內景篇의 道教思想 고찰. 成昊俊.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0. 13(1).
9. 韓奉材. 華陀玄門內照圖의 形成과 臟腑 理論에 대한 考察. 2007.
1. 許浚.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4.
2. 허준 지음.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대역東醫寶鑑. 하동군. 東醫寶鑑출판사. 2005.
3. 李梴.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91.
4. 龔廷賢 著. 李世華, 王育學 主編. 龔廷賢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5. 金滌.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p.181, 182.
6.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맹웅재, 박경남, 박현국, 방정균 外 6人. 韓醫學通史. 경기도 고양시. 대성의학사. 2006. p.313.
7. 홍원식 윤창열 편저. 증보중국의학사. 서울. 일지사. 2002. p.249, 284, 373, 481.
8.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 p.6, 10, 13.
9. 胡孚琛 主編. 中華道教大辭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10. 東洋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編. 東洋醫學大辭典. 1999. Vol.3.
11. 중국도교협회. 道教大辭典. 華夏出版社. 1993.

<단행본>

